

3^코 요한복음: 당신은 눈 먼 사람인가, 눈 뜬 사람인가?

성경말씀: 요9:1-41

요한복음, 사람의 상태를 본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

지난 몇 주 8장, 특별히 종교에 찌든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심각한 상태,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다. 종교적 전통, 혈통, 부귀영화, 명예 자랑

특징: 예수님과 대화 시 늘 동문서답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43),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가? 이해가 되는가? 복음이 이해가 되는가? 창조, 부활, 천국과 지옥, 내세가 믿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는 마귀, 마귀는 거짓말의 근원(44), 결국 마귀의 운명에 빠지다.

오늘 요9, <당신은 눈 먼 사람인가, 눈 뜬 사람인가?> 영적으로 눈먼 사람과 눈이 뜬 사람

고후4:3-4, 41절의 긴 장이지만 전체를 살펴보려 한다.

눈 먼 한 장님이 종교인들의 허세를 만천하에 드러낸다.

우리 주님의 기적들: 메시아 표적, 인간의 필요 만족, 자신의 신용장, 영적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시발점

메시아 표적 중 하나; 눈먼 자를 고치는 것(마11:5), 요9장

오늘의 기적: 9장의 영적 소경, 10장의 거짓 목자 진짜 목자 분별 시금석

오늘의 주인공: 태어나면서부터 소경(1),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 세상, 부모 일가친척을 보지 못함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삶, 모든 것이 어둠(8:12)

그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니 모든 것에 변화가 생김

육신의 눈을 뜨는 것,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고 그는 그렇게 하였다.

이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자. 예수님을 믿는 과정 묘사

예수라는 사람의 등장(1-12)

당시 소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구걸하는 것(8),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족을 다 안다(8).

이 사람을 고친 날은 또 안식일(14), 종교인들 광분함(5:9)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2): 예수님은 그를 긍휼의 대상, 제자들은 신학의 대상(2)

당시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편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자기 자신 혹은 부모 혹은 조상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주변 형제자매들의 문제,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큰 전제; 인간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사망, 아담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모든 병을 어떤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날 때부터 소경인 이유 하나님만 아신다.

또 하나님만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선을 위해 바꿀 수 있다.

분명히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병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3-4절을 읽으면 된다.

1.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2. 나는 낮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직 낮일 때 해야 한다.

여러 차례 소경을 고치심: 1. 여기서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함(6)

2. 두 명의 눈에 손을 대심(마9:27-31), 3. 침을 바르심(막8:22-26)

동일한 치유 능력, 그러나 방법은 다르다. 방법이 아니라 능력과 메시지를 보게 하심

진흙 사용: 1. 흙으로 인간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으로 오심, 실로암의 뜻: 보내어졌다(7), 이 소경도, 예수님도

이렇게 눈을 떴는데(7) 더 큰 문제가 발생함:

1.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8-9), 2.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가? 이 두 가지가 9장의 쟁점

사람들은 네 번이나 그에게 어떻게 나왔느냐고 묻는다(10, 15, 19, 26).

1. 이웃들(15), 2. 바리새인들(15, 26), 3. 유대인들(19)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없애 버리고 싶다. 백성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모두의 문제: 어떻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이다.

우리들의 대부분도 이와 비슷하다. '누구'가 아니라 '어떻게'에 관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요3:4, 9). 이것이 기독교이다.

기적이 일어난 방법을 안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소경의 대답(11),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쳐 주었다. 나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12). 병의 치유, 아직 영혼의 치유는 없음

그는 대언자이다(13-23)

바리새인: 당시 종교의 수호자 그룹 중 하나, 특히 백성의 대변인

바리새인들이 면밀히 조사한 이유: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것도 큰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고침을 받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더 큰 문제(14)

진흙을 이겨 바르고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병자를 고쳐 주었으면 할렐루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비방하려 함

또다시 예수님은 분열의 원인이 되심(9:16; 7:12-13)

바리새인: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16). 하나만 본다.

그들이 못 본 것: 그분은 안식일을 만든 분, 안식일의 주인, 안식을 주시는 분(마11:28-30)

소경의 대항,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그의 대답 그는 대언자(17)

모세, 엘리야, 엘리사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음. 증거를 없애려 함,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를 심문함, 2가지 질문(19), 1. 너희 아들이냐?, 2. 어떻게 보느냐?

부모의 대답 회피(20-21), 1. 우리 아들, 2. 그러나 모른다. 3. 그에게 물으라.

백성의 두려움을 본다. 출회 걱정(22), 인생의 끝이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면 영원한 출회가 기다린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 한다. 부모는 함정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러면서 모두가 함정에 빠진다.

하나님의 사람(24-34)

바리새인들 다시 그를 부른다. 맹세하게 한다(24).

그들은 재판관: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시작한다(24). 즉 그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라.

그런데 거지는 용감하게 진실을 말한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지혜, 언변도 없다(25).

사실만 말한다(25).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

네 번째 조사(10, 15, 19, 26).

소경은 화가 났다(27). 평생 보지 못하다가 눈이 열렸다.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회당에 갇혀 있다니.

그리고는 묻는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27)

바리새인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5:26). 새로운 진리를 전혀 수용할 주 모른다. 죽은 정통이다.

이것이 종교인의 특성

우리는 모세는 알지만 그는 모른다(29),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심. 니모데모의 판단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실 사그리 무시함

그들의 판단: 음행을 통해 난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함

소경의 놀람(30-33): 어떻게 그를 모를 수 있느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33).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바리새인들의 책망(34),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죄를 벗어날 상태가 되어 있다.

내 눈을 고쳐 주신 분,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35-38)

예수님, 이 사람 출회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신다(35).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최고의 지식,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다.

대언자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35),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거지의 대답(36-37)

그는 그분을 믿고 경배하였다(38). 바로 여기에 회심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고백: 침례자 요한(1;34), 나다나엘(1:49), 베드로(6:69), 예수님(5:25; 9:3 5),

소경 거지도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여기에 영생이 달려 있다.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5:18)

그런데 NIV, 기존 성경,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35)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의 타이틀, 아들은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것을 의미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 사람의 아들, 사람, 인성

논의의 초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29, 33)

거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즉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구원자로 믿느냐? 죄를 요서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믿느냐?

그의 대답: 주여(36)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요20:30-31), 요일5:20

다수 사본들, 하나님의 아들(루터, 제네바, 틴데일 등), 소수의 천주교 사본들 사람의 아들

우리는 다수사본을 통한 하나님의 성경 보존을 믿는다. 특별히 가장 널리 파급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교훈(39-41)

세상에는 보는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39).

보지 못하는 자들: 여기 소경 거지처럼 단순히 육신의 질병,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 수용

보는 자들: 바리새인들, 다 안다고 빼기는데 진리가 들어가면 배척한다.

즉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부요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만 주님의 진리를 수용한다(사66:2).

요1:12-13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의 반문(40), 우리도 눈이 멀었느냐?

예수님의 대답(41), 소경 거지처럼 눈멀었으면 진리를 발견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을 텐데 다 안다고

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행이다.

우지 주님의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8:12; 9:5).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소경 거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소경,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믿고 경배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는 한 것이 없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신뢰하였다.

소경 거지는 올바른 선택, 많은 희생 감수,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잠4:18).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연약함, 무능함, 타락, 어둠, 죄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에 반응한다. 보수주의자

반면에 나는 완벽하다. 우리 힘으로 유포피아 건설, 좌익(동성애, 낙태, 진화론, 차별금지법), 진보주

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